

1 본회소식



미술아카데미 개강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회장 권영걸/69응미)가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60사회복지)가 주최하는 미술아카데미가 지난 4월 20일 서울 마포구 SNU장학빌딩베리타스홀에서 개강했다. 이날 총동창회 이승무(72경제)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본회 이민주(76회화) 상임부회장의 미술아카데미 및 강사소개에 이어진 첫 강좌는 서울대미술관장 심상용(81회화) 동문의 '인생에 예술이 필요할 때'라는 주제의 강의(▲위사진)로, 이날 부산에서부터 올라온 수강생이 있을 정도로 강의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수강생들은 총동창회 측에서 배포한 노트에 필기를 하며 강의를 경청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기다려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는 6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아카데미는 서울대 동문을 대상으로 원래 수강신청 정원을 49명 이내로 공지했으나, 기존 모집인원을 훌쩍 뛰어넘은 70여명의 동문이 수강을 신청했다. 심동문의 강좌는 지난 4월 27일 2회차로 마무리되었으며, 5월 4일과 11일에는 건국대학교 겸임교수인 최혜원(89동양) 동문이 '미술 후원의 역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5월 18일과 25일에 진행되는 국민일보 부국장이자 문화전문기자인 손영옥(박사11미술경영) 동문의 '미술품 투자' 강좌 기간 중에는 같은 장소에서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SNU아트페어가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6월 8일과 15일에 열리는 미술사가 이연식(90서양) 동문의 '위작과 모작' 주제의 강좌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본회 소식

에스아트몰 오픈

본회(회장 권영걸) 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사장 권영걸)이 지난 4월 21일 프라이빗 온라인갤러리인 에스아트몰을 오픈했다. 에스아트몰은 에스아트플랫폼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작품 및 아트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로, 모든 작품의 가격 및 구매창은 몰에 가입한 회원에게만 공개한다. 지난 3월 에스아트플랫폼과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MOU를 체결함으로써 서울대 동문들은 모든 작품을 10% 할인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에스아트플랫폼 (후원)회원 가입하면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 동문일 경우, 에스아트몰 가입 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발급되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원우대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동문회원등급으로 조정이 된다.

● 홈페이지 : www.sartmall.com

● 문의 : 010-8605-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베리타스미술상전 더샵갤러리 개최



모교 졸업전시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2022 베리타스미술상전'이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더샵갤러리(◀사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베리타스미술상전은 지난해 모교 졸업전시에서 서울대 미대동창회장상(베리타스

미술상)을 수상한 각 전공별 우수 졸업생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앞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전시로서, 수상작가는 김수연(17공예), 손석민(17디자인), 이규림(15디자인), 이은호(15동양), 이재석(15조소), 이호경(17영상), 장재경(16서양), 전희영(17공예) 등 8인이다. 이번 전시에서 8인의 작가는 젊은 감각과 새로운 시선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한편 더샵갤러리는 약 1,500평 규모의 3층짜리 포스코 홍보관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북쪽에 위치해 있다.

SNU아트페어 개최



본회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와 오는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마포구 소재 SNU장학빌딩(◀사진) 베리타스홀에서 서울미술나눔-2022 SNU아트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SNU아트페어는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서울대 동문들에게 작품 소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익금의 일부를 서울대총동창회 장학금(미대특지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는 동문작가 70여명의 회화 및 조각 140여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사무국 주5일 근무확대



본회 사무국이 지난 4월 25일부터 주4일에서 주5일 근무제로 확대됐다. 이번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본회의 업무효율성이 증가되고 동문 및 협력기관과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됐다. 선릉오피스(◀사진)는 매주 월~금요일에 운영되며, 서울대오피스는 기존과 같이 매주 화요일에 운영된다. 근무시간은 오전10시~오후5시이다.

동창회 대표전화: 02-555-1946

서울대 오피스: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50동 311호
선릉 오피스: 강남구 테헤란로311 아남타워 1323호

모교 소식

해외학자 특강 개최



모교 디자인학부(학부장 김경선)와 '서울대학교 사회적 감수성을 실천하는 디자인 리더 양성사업단(단장 정의철/88산디)'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소장 김성희/82회화)가 후원하는 해외학자 특강이 지난 4월 6일 오후 6시 개최됐다. 이날 오스트레일리아 Monash University에서 Spatial Design 전공을 담당하는 전경주 교수의 'Inter-Space, Species, Relations'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이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동양화과사무실 캡슐커피머신 마련



모교 동양화과 학과사무실에 캡슐커피머신이 마련됐다. 커피머신과 얼음제조기는 조교인 박현정(09동양), 이인승(12동양) 동문이 사비로 마련했다. 두 조교는 "학생들이 학과사무실이라는 장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불일이 없을 때에도 편하게 드나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커피머신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양심 저금통에 모인 커피값은 학기 말에 있을 피자파티를 위해 쓰일 예정이니 학생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학과사무실(51동 305호)에 캡슐커피는 물론 얼음제조기와 소형 정수기, 일반 사이즈와 톨 사이즈의 종이컵도 준비되어 있어, 이용을 원할 경우 현금 1000원만 가져가면 된다. 현금 1000원은 '양심 저금통'이라고 적힌 노란 메모지가 붙은 통에 넣고, 캡슐은 사용 후 '캡슐 쓰레기' 통에 버리면 된다고 한다.

공공미술공모전 대상작품 설치



지난해 'SNU도서관 옆 공공미술 학생작품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Team233'의 작품 'Reflection'이 설치됐다. Team233은 조소과 18학번 박민정, 정민지, 정리나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작품의 기획부터 설치까지 진행했다. "팀원 모두 지금까지는 개인 작품을 위주로 작업을 해 왔는데,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 중 관심

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됐다"며 "공공미술이라는 큰 규모의 작업을 해 볼 수 있다는 점과 본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학부생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다수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된 2022학년도 1학기에 설치된다는 상황과 공모전의 주제를 고려하여, 비대면과 대면 만남이 혼재된 동시대의 인간관계를 다룬 작품을 구상했다. Reflection은 연못 속 자신의 모습에 취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나르시스의 신화를 모티브로 제작됐으며, 참여자가 자신의 얼굴이 아닌 타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공간을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작품은 오랜 시간 지속된 비대면 만남 때문에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게 된 사람들이 다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Reflection은 거울에 비친 모습과 벽돌 사이로 비친 모습을 매개로 삼아 타인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시공간이다. Team233은 공공미술의 장르 특성을 고려해 설치 장소와 주요 감상층을 염두에 뒀고, 사람들의 참여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 노력했다. 또한 "도서관에 앉아 종일 무언가에 몰두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구조물에 직접 참여해 주위를 환기하는 한편, 함께 관람하는 상대와도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작품은 회색빛 도서관 건물 사이에서 생동감을 부여하는 주황색의 벽돌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조형물이 관정관 외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면서도, 바라봤을 때 주의가 환기되는 느낌을 주려는 Team233의 의도이다. Team233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참여하는 작품이므로 구조물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에 가장 많이 신경 썼다"고 전했다.

서울대 소식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카카오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4월 20일 밝혔다. 카카오 친환경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4만평 이상, 전력량 100MW 규모로 서울대 시흥캠퍼스 M1 부지에 설립 예정이다. 이는 설립 예정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중 최대 규모로 2024년 착공해 2026년 준공 완료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번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메타버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대와 미래 산업에 대한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특성화 사업 개발, 친환경 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 우수 인재 교류 등 ESG 차원의 노력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의 뛰어난 인재와 연구 인프라가 카카오의 혁신적 플랫폼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서울대와의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립 협력을 통해 카카오의 다양한 미래 사업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로 국제디자인상



서울대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의 지난해 수상작(커뮤니케이션 디자인부문 본상)에 이름을 올렸다. 화웨이, BMW,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굵직한 국내외 대기업들이 휩쓴 이 공모전에서 서울대는 '홈페이지'로 상을 받았다. 국내 대학 중 처음이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심사평에서 “서울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적 공동체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홈페이지는 그걸 시각적으로 구현해냈다”고 밝혔다.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 가득 학생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영상이 영화처럼 재생된다. 왼쪽 메뉴에 커서를 올리면 교육·연구·입학 카테고리도 나온다. 학교·총장 소개 등은 마지막에 있어 학생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부터 부각했다. 2020년 4월 신설된 서울대 기획처 산하 소통팀 직원 5명은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SNS), 유튜브, 교내 매체를 운영하는 젊은 조직지만 성과는 화려하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if 디자인어워드 외에도 2020년 '웹어워드코리아' 교육부문 통합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엔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보유공 우수기관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소통팀이 운영하는 서울대 공식 유튜브 채널은 인터뷰 콘텐츠인 '샤로잡다'로 화제를 모았고, 최근 총 조회 수 270만회를 돌파했다.

거주형대학 도입추진

서울대가 추진하는 'RC(residential college-거주형 대학)' 도입을 두고 학내 구성원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기숙형 대학'이라고도 불리는 RC는 학생들이 1학기 이상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교육받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대는 이르면 오는 2학기에 RC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대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16~18일 학부생 1112명, 전임 교원 231명을 대상으로 관악캠퍼스 RC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

사한 결과 학부생의 79.6%, 전임 교원의 86.1%가 “RC 도입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학부생의 80.3%는 “RC 적용 대상을 재건축될 기숙사 입주 학생 중 희망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입주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4.6%였다. 전임 교원들은 49.4%가 “희망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45.5%는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휠체어도 편한 샤로수길



서울대 학생들이 지난해 5월부터 직접 휠체어를 타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낙성대역 인근의 '샤로수길' 주변 가게에 들어가 보는 체험을 했다. 매장 입구 형태부터 내부 착석 방식, 메뉴 주문 방법 등을 휠체어를 탄 장애인 입장에서 기록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직접 조사한 곳만 800곳에 달한다. 조사 결과는 '샤로잡을지도(地圖)'에 담겼다. 지난 1월 학내외에 배포된 이 지도는 매장 입구 폭이 휠체어가 드나들기 충분한지, 문턱은 있는지 등의 입장 정보와 휠체어를 탄 채 먹을 수 있는 입식 테이블이 있는지 등 실제 이용 정보도 포함됐다. 경사로가 없는 가게엔 학생들이 설치를 권유하기도 했다. 설치 작업은 관악구청이 담당하지만, 가게 주인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은 관악구청에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다시 설득에 나섰다. 1년여 활동 결과 지난 4월 19일 기준 학교 주변 상점 32곳에 경사로 설치 작업이 완료됐다. 학생들의 경사로 설치 및 지도 제작 과정은 지난 2.7-4.30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갤러리에서 열린 '무無턱대고 평등한 지도' 전시회에서도 공개됐다.

봄 알린 '프리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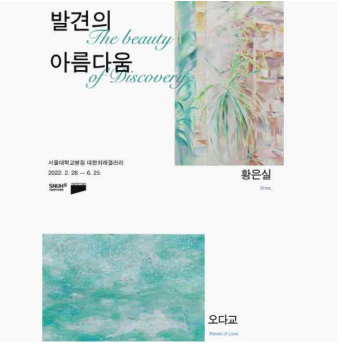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인문대 광장과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프리페스(PRE-FES)'가 열렸다. 프리페스는 2022 봄 축제 'SNUFESTIVAL: 홈커밍'의 공연을 위한 예선전으로, 총학생회 산하 기구 '축제하는 사람들'(축하사)이 주관했다. 프리페스 행사에서는 예선 공연과 함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이벤트가 진행되며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이번 프리페스는 비대면 대학생활에 아쉬움을 느꼈던 재학생과 첫 학기를 시작한 신입생 모두에게 뜻깊은 추억으로 남았다. 한편 봄 축제 2022 SNUFESTIVAL: 홈커밍은 오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대미술관 소식



튜링 테스트 : AI의 사랑 고백
Turing Test : an AI's Love Confession
2022년 3월 24일 - 5월 22일

전시장소: 전시실1-4
전시부문: 회화 영상 설치 등 90여 점
참여작가: 노진아 문성식 박관우 이덕영 이섯별
이재석 임동열 전보경 정 승 홍세진
서울오픈미디어(권병준 백주홍 김택만)



발견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Discovery
2022년 2월 28일 - 6월 25일

전시장소: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래갤러리
참여작가: 오다교 황은실

취임사

제29대 회장 김종섭(66사회복지)



존경하는 44만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저는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어 4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동창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총동창회는 새로운 발전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희범 명예회장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한동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회장 선임절차의 투명화 등 회칙 개정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2년간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44만 서울대인이 나라와 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보람 있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또 동문들의 만남이 유익하고 즐겁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총동창회 신년조찬 포럼에서 동문이신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서울대 졸업장은 특권이 아닌 책임의 상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서울대인의 사회적 책무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보람 있는' 동창회로 나아가기 위해 동문들의 나눔 실천과 재능 기부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출범한 사회공헌위원회와 연계하고 모교의 글로벌사회공헌단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서울대 동문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계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동문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관악경제인회'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보람 있는' 총동창회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선·기부 음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모교 및 동문 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인은 '나눔의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타 대학 동문회와도 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회원들에게 '유익한' 동창회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이희범 명예회장께서 잘 닦아 놓은 정례 조찬 포럼,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시대를 맞아 참여 동문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생활에 지혜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진학을 앞둔 고교생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동문들에게는 기존의 '홈커밍데이'와는 별도로 동문 자녀들을 위한 '서울대 방문 코스'를 마련하여 '서울대인의 꿈을 가족이 함께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 리조트, 호텔, 음식점 등 MOU 체결 대상을 더 확대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서울대인의 복지 향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문들의 맞춤형 생활용품과 아이디어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

는 '서울대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겠습니다. 서울대 동문들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모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성과로 이뤄진 특화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 동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유익한 쇼핑 커뮤니티가 될 것입니다. 정제된 모교 강원도 평창캠퍼스 일대를 동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힐링 명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모교 발전기금과 강원도와 협력하여 은퇴 동문들을 위한 시니어 타운 건설과 함께 노령층 전담 병원 및 기숙형 특화학교 건립 등의 중장기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캠퍼스 일대가 평창올림픽을 개최한 알펜시아에 이어 '강원청정지역'의 새로운 휴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동문들이 만나서 즐기는 '즐거운' 동창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동문들 간의 모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면 '즐거운' 동창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산, 바둑, 골프, 국토문화기행, 미술음악 등 각 분야별 취미클럽을 더욱 확충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대총동창회와 각 단과대학대학원 동창회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간의 친목을 다지는 각종 프로그램은 단과대학별 동창회의 특징을 잘 살려 해당 동창회가 이를 주도함으로써 총동창회와 단과대별 동창회가 더욱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나 지방의 동창회 지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문들의 모임이 활성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임사

제28대 회장 이희범(67전자공학)



동문 여러분, 저는 오늘을 끝으로 약 2년간의 회장 임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본래는 돌아오는 6월에 임기가 만료되지만, 회칙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안에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추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쓴 동문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취임사를 전했는데, 지금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창회에는 좋은 의미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는 서울대 총동창회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였습니다. 취임 당시 말씀드렸던 동창회 4대 비전은 시련 속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첫째,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를 모토로 매월 조찬포럼과 수요특강을 열어 지금까지 총 스물두 차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 김난도 교수님 등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나오셨고, 한 회에 50여 명씩, 어림잡아 1000여 명의 동문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신 동문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겁니다. 둘째, 동문들의 취미를 살리고 함께 즐기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서, 등산대회, 골프대회, 국토문화기행을 열고, 갑갑한 일상에서 동문들에게 작은 즐거움이나마 드리려고 노

력했습니다. 셋째로 회원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 전국 29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동문들은 건강검진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더케이호텔, 라마다군산호텔, 제천 하늘계곡연수펜션 등 전국 주요 호텔, 리조트, 식당 등과도 MOU를 맺어서, 동창 회원증만 제시하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위원회와 관악경제인회를 발족해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서울대총동창회를 실현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주무 부처 승인을 마치고 올해부터 서울대 동문뿐만 아니라 우리 손길이 필요한 초·중·고생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풍산그룹 류진 회장님과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님께서 큰 금액의 후원금을 내주셨습니다. 관악경제인회는 서울대 출신 경제인들의 네트워크로서, 각자 경제계에서 활약했던 동문들이 힘을 합쳐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이부섭 동진세미켄 회장님께서 초대 회장을 맡아 이끌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 동문의 위상을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지만, 회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지혜를 모으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동창회를 정상화시키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소임에 충실했습니다. 새 시대에 맞게 동창회칙을 개정하고, 회장 임기를 1회 연임 가능하게 조정했습니다. 신임 회장 선출 절차도 더 투명하게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안정화된 동창회에 많은 동문들이 뜨거운 성원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창회비 규모는 평소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악회에는 예년의 네 배나 되는 43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많은 동문들께서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동창회 가장 큰 축제인 홈커밍데이는 2년 동안 열지 못했지만, 대신 온라인 홈커밍데이를 시도해서 동문들의 참여와 지원 덕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숙원이었던 역사연구기록관도 지난해 착공해서, 2024년에는 학교 캠퍼스에 동창회 사무실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동창회는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약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추대되는 후임 회장님께도 변함없는 호의와 협력을 베풀어 주시어, 동창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팬데믹으로 점철된 지난 2년을 견디고, 이제 서울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방대 위기에 대한 책임 의식도 강조됩니다. 모교와 동창회, 재학생과 졸업생이 일치단결하여, 국내 최고 대학으로 사랑받은 만큼 사회에 공헌하는 서울대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든든한 모교의 조력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2년, 가장 어려운 시절 동문들과 고락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교와 44만 동문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44만 동문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중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5 총동창회 소식

5월 조찬포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2022년 5월 조찬포럼

김항식 호암재단 이사장, 前국무총리

독일에서 배운다



일시 2022.5.12.(목)
07:30am - 09:00am

장소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 홀(서울시청 앞)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 일 시 : 5월 12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서울시청 앞)
- 강 연 자 : 김항식 호암재단 이사장, 前국무총리
- 주 제 : 독일에서 배운다
- 참 가 비 : 5만원 / 연간 40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 * 참가신청 및 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 전화 02-702-2233
 - *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사가 갑자기 취소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5월 국토문화기행

- 일 시 : 5월 19일 (목)
- 장 소 : 전북 익산
- 주 제 : 백제의 못 이룬 도읍지 · 현대 호남평야의 형성과정
- 안내 및 해설 : 이민부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 참가비 : 5만원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5월 수요특강

- 일 시 : 5월 25일 (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홍익희 前세종대 교수
- 주 제 : 돈의 인문학
- 신청기간 : 5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 가 비 : 무료 (김밥, 생수 및 도서 제공)

6월 조찬포럼

- 일 시 : 6월 9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서울시청 앞)
- 강 연 자 : 권영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 주 제 : 20대 정부의 국정방향
- 신청기간 : 5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 가 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미술아카데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미술아카데미

기간 : 4월 20일(수) ~ 6월15일 (수)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일정 및 강연자

날짜	시간	강사	주제
4/20(수)	15:00~17:00	심상용 (서울대 미술관장)	한국 현대미술
4/27(수)	15:00~17:00		
5/4(수)	15:00~17:00	최혜원 (건국대 겸임교수)	미술 후원의 역사
5/11(수)	15:00~17:00		
5/18(수)	13:00~15:00	손영옥 (국민일보 문화전문기자)	미술품 투자
5/25(수)	13:00~15:00		
6/8(수)	15:00~17:00	이연식 (미술사가)	위작과 모작
6/15(수)	15:00~17:00		

주관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 기간 : 4월 20일 (수) ~ 6월 15일 (수) ● 전 강좌 신청마감됐습니다
-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연자 및 주제 :
 - 심상용(81회화/서울대미술관 관장) - 한국 현대미술
 - 최혜원(89동양/건국대 미술교육전공 겸임교수) - 미술 후원의 역사
 - 손영옥(박사11미술경영/국민일보 부국장·문화전문기자) - 미술품 투자
 - 이연식(90서양/미술사가) - 위작과 모작

6월 수요특강

- 일 시 : 6월 22일 (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황규득 외대 아프리카학부 교수
- 주 제 : 식민지배와 소말리아의 무정부성
- 신청기간 : 6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 가 비 : 무료 (김밥, 생수 및 도서 제공)

6월 등산대회

- 일 시 : 6월 25일 (토) 오전 10시
- 장 소 : 안산 (독립문역 5번 출구)
- 참 가 비 : 2만원 (중식 및 기념품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문자1877-2039(전화불가), 팩스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관악경제인회 회원 모집

모집대상 : 서울대총동창회 회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경제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이상, 언론 및 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정부 또는 경제분야 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원급 이상,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회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회원

신청방법 : 총동창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동창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회비납부안내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3.24-4.27)

- 회 장 회비 권영걸(69응미)
- 부회장 회비 이선원(75회화) 채혜선(82응미)
- 이 사 회비 류지선(89서양) 박덕실(81회화)
- 일 반 회비 김광윤(94동양) 김두진(93서양) 김여옥(63회화)
김정아(90서양) 노명자(63응미) 서동희(66응미)
서해영(02조소) 안성규(86서양) 이겨레(06서양)
이지선(82회화) 이혜민(74응미) 전기순(82응미)
채현교(90서양) 홍정희(60회화)
- 평 생 회비 허민자(63응미)
- 광고 후원금 D-pack 107,000원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330
게시물



749
팔로워



95
팔로잉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전시제보 및 문의 snuarta@naver.com
snuart.or.kr/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
밴드명 공개 · 멤버 523 ·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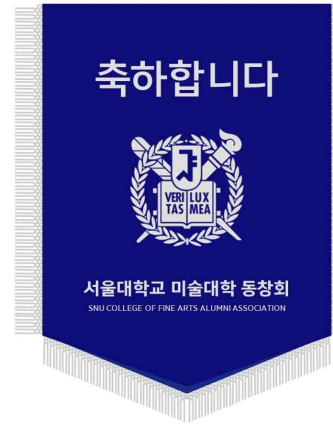
글쓰기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보세요~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회지광고를 통해 기업 또는 단체,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회 지 명 : 서울미대동창회 E-NEWS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광고마감 : 매월 20일

발 행 일 : 매월 말일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전면	50만원
1/2면	30만원
1/3면	20만원
1/5면	10만원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본회 권영걸 회장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주최 조찬포럼에서 '문화강국의 길'이란 주제의 강연을 했다. 다음은 이날 세계일보에 보도된 관련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문화강국 비결, 전문가에 맡기되 非 전문가 끌어들여야"

권영걸 서울예고 교장, 서울대 동문 상대로 특강
 "무력·경제력 말고 매력으로 세계인 마음 잡아야"
 "문화 핵심은 다양성... 싸움 아닌 용서·화해 중요"



▲서울대 미대 학장을 지낸 권영걸 서울예고 교장은 14일 서울대 총동창회가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문화강국의 길'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서울대 총동창회 홈페이지

“우리나라 정치,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정치 상황이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 학장을 지낸 '문화 전문가' 권영걸(71) 서울예고 교장의 진단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을 지명하는 등 새 정부 문화정책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권 교장은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한 비결로 “전문가에게 맡기되 비(非)전문가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권 교장은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서울대 총동창회 주최로 열린 조찬포럼에 참석해 '문화강국의 길'이란 주제의 강연을 했다. 1개월여 전 대선에서 서울대 동문(법대 79학번)인 윤 후보가 당선되고 다음달 10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기대 때문인지 서울대 동문들이 아침부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내려 구름처럼 몰려드는 통에 행사장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무력·경제력 말고 매력으로 세계인 마음 잡아야"

서울대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 디자인학(석사), 건축공학(박사)을 전공한 권 교장은 이른바 '강대국'의 정의를 논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19세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고 20세기 들어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 등 혼돈의 시대를 거쳐 미국이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든 뒤로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사태, 그리고 현재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미국의 영향력이 확실히 줄어든 가운데 다시 혼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자신의 힘으로 다른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정의한 권 교장은 그렇게 타국을 움직이는 힘으로 △무력 △구매력 △매력 3가지를 꼽았다. 솔직히 20세기 초반 해도 군사력(무력)이 센 나라가 강대국이었다.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이나 일본처럼 군사력은 그저 그래도 막강한 경제력(구매력)을 지닌 나라들도 강대국에 합류했다. 그랬던 것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의 힘(매력)이 중요해졌다. 권 교장은 미국의 석학 조지프 나이가 정립한 '소프트파워' 개념을 인용해 “21세기에는 군사력, 경제력을 넘어 매력, 즉 소프트파워를 갖춘 나라가 강대국”이라며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문화, 가치, 정책을 다른 국가로 하여금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단언했다.

요즘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팝, 그리고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한국인의 창의력, 그리고 한국의 문화 인프라는 이미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지난 정권 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서 보듯 한국을 '문화강국', '문화예술 선진국'으로 선뜻 규정하기엔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 핵심은 다양성... 싸움 아닌 용서·화해 중요"

이에 권 교장은 문화강국으로 가는 비결로 △전문가 중용 △비전문가의 참여 확대 △정치의 문화적 전환 등을 제시했다. 권 교장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분명히 문화강국이었다. 그랬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최근까지 문화 암흑기를 경험했다. 이승만정부 시절 문화계와 연예계를 주력파라 한 '정치깡패' 임회수부터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까지 흑역사를 죽 나열한 권 교장은 “문화강국으로 가려면 최고의 전문가를 발탁해 그에게 문화정책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출범을 앞둔 윤석열정부에 조언했다.

하지만 음악, 미술, 무용 등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들만으로 문화를 융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이 세계적인 음악가, 미술인, 무용수를 배출하더라도 정작 일반 국민이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을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권 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한 오늘날은 비전문화된 문화 생산자에 의한 문화 창조가 대세”라며 “국민 모두가 문화 생산의 주체인 나라가 바로 문화강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교장은 '후진적'이란 평가를 듣는 한국 정치에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말라”고 주문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 들어 조장된 한·일 갈등 등을 정치가 문화 발전을 어렵게 만든 사례들로 지목한 권 교장은 “문화의 핵심은 다양성이고, 또 싸움이 아닌 용서와 화해”라는 말로 새 정부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유념해야 할 기준점을 제시했다.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 2022-04-14

유튜브 강연 '문화강국의 길 - 서울대학교총동창회포럼 - 권영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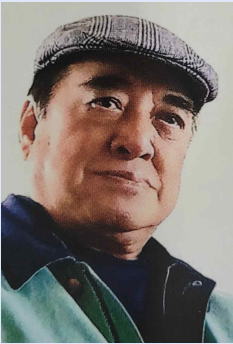


서울시장이 추천한 책

세계 책의 날인 지난 4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시민들에게 본회 권영걸 회장의 저서 '서울을 디자인 한다'를 추천했다. 오시장은 "이렇게 감격스러운 날을 기념하며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책을 몇 권 소개해드릴까 한다"며 권영걸 전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의 '서울을 디자인 한다'를 비롯해, 류시화 시인의 잠언시 모음집인 '지금 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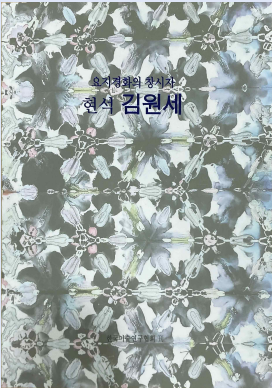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과 '채근담', 마디 그로스의 '위대한 모순어록', 김승욱 중앙대 교수의 '제도의 힘', 담비사 모요의 '죽은 원조' 등을 꼽았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디자인을 말하고 있는 '서울을 디자인 한다'는 서울을 디자인하는 이 모든 과정을 22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정리한 마스터플랜이다. 비단 서울의 도시혁신 사례들뿐 아니라, 한국 공공디자인의 정체성과 방법론 그리고 비전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화집 발간 김원세(58회화)



요지경화의 창시자 현석 김원세 동문의 화집이 발간되었다. 화집은 각각 ‘삶을 반영하는 추상회화, 요지경화의 창시자 현석 김원세의 예술세계’, ‘숨겨진 미를 찾아내는 신기의 유미주의자’, ‘원세화의 미학’, ‘철저한 독자적인 조형정신’의 총 네파트로 구성되어있다. 책에는 김동문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의 작품까지 실려있다. 김동문은 최근 제시하고 있는 요지경화에 대해 “화선지의 장점을 최대로 살려 나만의 제작기법을 개발하여 새로운 화법을 세계 최초로 탄생시킨 작품”이라고 전했다. 이구열 미술평론가는 “김원세의 반 전통적 수법의 대담한 추구와 집착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며 “그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충실한 고집스럽고 정직한 화가이다”라며 “이 작가의 확실한

작가상은 누구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철저한 면을 갖고 있다”고 전한다. 최성규 위덕대 겸임교수는 “요지경화는 삶 그 자체이면서 자기회복이며 동시에 지적인 반추”라며, 김동문의 작가 이념이 “충실한 미적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있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라는 통합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게 하는 내적 에너지로 승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동문은 개인전 5회 및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열린 아시아현대미술전,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초대전, 국회개원35주년기념미술초대전 참가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왔다. 또한 한국미술대상전 문교부장관상, 국전 문공부장관상 등 연4회 특선 및 추천작가상, 대구미술대전 초대작가상, 대한민국미술인상과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명예교수이자 한국미술협회 고문이다.



뱅앤올룹슨 물방울 스피커 출시 김창열(48회화/192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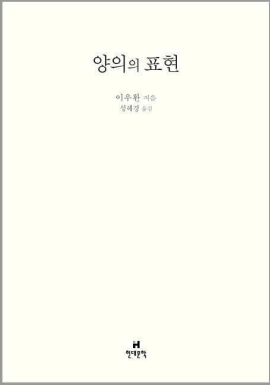


이 A9는 인테리어 오브제처럼 감각적인 디자인과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가

뱅앤올룹슨은 서울옥션의 미술 대중화 브랜드인 ‘프린트베이커리’와 협업해 작고한 김창열 동문의 작품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베오플레이 A9 김창열 에디션 by 프린트베이커리’를 국내 단독 한정 수량으로 선보였다. 2013년 국내에 첫 선보인 베오플레

특징으로 10년 가까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뱅앤올룹슨과 프린트베이커리는 스피커 전면을 감싸는 원형의 패브릭 커버를 김동문의 ‘물방울 3’ 작품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김동문의 맑고 영롱한 물방울 그림이 더해진 베오플레이 A9는 뱅앤올룹슨 압구정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해 공식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난 3월15일부터 판매됐다. 한편, 김동문은 1949년 모교에 입학했으나 전란으로 학업을 중단했고, 월남해 경찰과 미술교사 생활을 했다. 1950년대 말 ‘앵포르멜’을 기치로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었던 그는 김환기, 백남준 등과 교류했으며 1970년 경 프랑스에 정착한 후 현지에서 오랜 시간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이때부터 일생 동안 변주해 그렸던 물방울은 동서양의 문화와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양의의 표현’ 출간 이우환(56회화)



현대미술의 거장이지만 글도 쓰는 이우환 동문의 신작 에세이 ‘양의의 표현’이 출간됐다. 월간 ‘현대문학’에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연재한 글 64편을 모았으며, 2002년 ‘여백의 예술’, 2009년 ‘시간의 여율’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에세이집이다. 책은 작품과 예술에 대한 견해 외에도 일상에서 마주한 것들에 대한 소회, 그동안 만난 예술가들에 대한 기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책의 제목인 ‘양의(兩儀)’는 동양철학

에서 음과 양, 혹은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이동문의 그림 철학을 암시하는 단어인 셈이다. 책에는 이동문의 작업과 예술에 대한 생각, 동료 작가들과의 에피소드, 그의 예술에 대한 성찰과 사유 등과 더불어 “사업가라기보다 어딘가 투철한 철인이나 광기를 품은 예술가”라고 이견희 회장을 추모한 글도 실려 있다. 이동문은 책에서 “그리는 것과 그리지 않은 것(공백)의 관계성이 회화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며, “여백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른바 유(有)가 무(無)와 서로 관계하고 반응하며, 거기서 생기는 장(場)의 힘의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문은 1956년에 모교에 입학 후 중퇴했다. 한국 생존 작가 중 미술시장에서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싼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서울옥션 경매에서 1984년 작품 ‘동풍’이 31억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별세 강광(59회화/1940-2022)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서정적인 화법으로 표현해 온 민중미술 1세대 작가 강광 동문이 지난 4월 5일 별세했다. 1940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강동문은 1965년 모교를 졸업하고 베트남전 참전 후 1969~82년 제주 오현중고교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1982년 군부정권에 김경인, 임옥상, 신경호, 홍성담과 함께 ‘불온 작가’로 낙인찍혀 작품들을 압수당했다. 제주에서 그는 유신정권 아래 암울한

현실을 고뇌하며 ‘관점’ 동인을 조직해 지역 미술운동을 이끌었다. 당시 작가 노트에 “예술가는 한 시대를 고발하고 정화시키는 예언자”라고 쓴 그는 당시 민중미술 작가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자신의 시대정신을 독창적 화법으로 표현했다. 이후 인천대 교수로 부임해 작업을 이어갔다. 1970~80년대엔 추상과 구상의 경계에서 산과 나뭇가지, 푸른 색면으로만 묘사된 하늘을 단순형태로 표현하며 조형실험을 이어갔다. 90년대 후반엔 해학적인 호랑이, 패턴화된 꽃과 나무 등 민화적 요소가 두드러졌다. 이런 화풍으로 빼어난 조형미와 서정성을 보여준 그는 ‘자연주의 서정시인’이라 불렸다. 2003년 강화도 마니산 인근으로 터전을 옮겼으며,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인천대 부총장, 민예총인천지회장,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교회에 난 오솔길 김병종(74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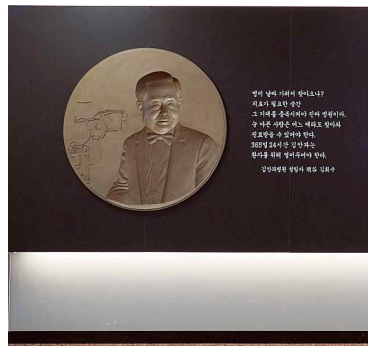


담은 것이다. 가로 2.4m의 화판 23개를 이어붙였다. 또한 김동문은 문화일보

가천대 석좌교수 김병종 동문의 대형벽화(0.9×55.2m) ‘바람이 임의로 불매-송화 분분’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 설치됐다. 봄날 바람에 날려가는 송화가루를 통해 생명의 근원과 창조의 신비를

연재 ‘김병종의 시화기행’을 독자들의 성원에 예상기간을 넘겨 2년여만에 끝내고 오는 9월에 경기도 안산 대부도의 리조트 ‘아일랜드 더 헤븐’에서 개인전을 가지며, 책 ‘성경 오딧세이아’, ‘바람이 임의로 불매’도 곧 출간한다. 김동문은 “미술계 선배들께선 그림만 그리지 왜 글을 써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느냐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쓰고 그리는 두 가지 일을 함께하는 숙명을 타고났기에 스스로 주체할 수 없습니다.”고 말한다. 그 숙명에 순응해 밤새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결실로, 내년 상반기까지 두 개의 전시와 함께 8권의 책이 나온다. 사람과 풍경, 예술, 여행 이야기가 섞인 에세이집과 함께 ‘시화기행’ 뉴욕, 더블린, 도쿄, 베이징 편이 잇달아 나올 예정이다.

안과의사상 제작 이용덕(77조소)



올해 개원 60주년을 맞은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이 4일 병원 본관 로비에서 '김안과병원 개원 60주년기념 히스토리 월(History Wall)'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제막식은 설립자인 김희수 이사장, 장재우 병원장, 김용란 대표병원장을 비롯해 이사회 이사진, 주요 보직자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히스토리 월'에는 '안과의사상'과 김안과병원의 역사와 활동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될 모니터 2대가 설치되었다. '안과의사상' 작품은 브론즈 역상조각으로 원형이며 직경 약 1m 20cm 규모이다. 작품은 안과의 기본 진찰장비인 세극등현미경과 함께 한 설

립자의 모습에서 모티브를 딴 인자한 안과의사의 모습이며, 관람객이 움직이면 조각의 모습이 따라 움직이는 듯한 역상조각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이용덕(모교 조소과 교수) 동문의 작품이다. 함께 설치되는 모니터에는 개원 60주년을 맞아 제작한 김안과병원의 도전과 역사를 다룬 기념영상, 김안과병원의 진료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담은 영상 등을 상영하게 된다. 또한 '눈이 아픈 사람은 365일, 24시간 어느 때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김희수 이사장의 진료철학을 담은 어록도 함께 전시된다. 김안과병원 장재우 원장은 "김안과병원은 김희수 이사장이 지난 1962년 개원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끝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과병원이 되었다."며, "국민들의 사랑을 통해 성장한 김안과병원이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앞으로 고객과 함께 세계적인 안과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아 이번에 히스토리 월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부 비엔날레 평가 1위 심상용(81회화)



심상용 동문이 예술감독을 맡은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가 정부 비엔날레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9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비엔날레는 전시기획의 완성도는 물론 관람객 수와 만족도 양측에서 호평받았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충족시킨 의미 있는 결과이다. 비엔날레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였으

며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전국 6개 비엔날레를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난 2018년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2등급으로 평가되어 국내 3대 비엔날레로서의 명성을 회복한 대구사진비엔날레는 이번 평가에 참여한 비엔날레 가운데 유일하게 2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세계적인 사진축제로서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평가에 따르면 심동문이 제시한 주제 '누락된 의제-37.5 아래'는 사진 매체의 특수성과 팬데믹 시대라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담아냈으며, 팬데믹 상황에 접어든 후 지난 2년 여간 열린 국내외 비엔날레 중에서도 주제의 시의성, 실험성과 현대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심동문은 현재 모교 조소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미술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간 '덥석 받아든 위로' 이강화(81회화)

이강화 동문이 신간 '덥석 받아든 위로'를 펴냈다. 이번 책은 흙과 꽃, 물과 풀 등 자연을 작품으로 담아낸 그림 이야기다. 그동안 그려온 그림 중 뽑은 40여 점과, 함께 읽으면 좋을 소재의 발견 이야기부터 컬렉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색의 글들이 담겨 있다. 이동문은 "그림은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때론 느낌만으로도 통하는 예술이다. 소재가 먼저 보이기도 하고 색감이 더 눈에 띄기도 한다. 모두가 다르게 보기 마련이다.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보든



스스로 생명을 틔우는 자연에 함께 공감하고 순응하는 작가의 세계관을 봐주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자연을 닮은 재료의 쓰임을 알아챘다면 더더욱 고맙고, 재료의 질감과 그림 속 깊은 그림자의 방향까지도 읽어준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그림을 그려온 이동문은 모교 졸업 후 파리 유학을 마치고,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세종대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설렘의 과정미학 전기순(82응미)



강원대 멀티디자인학과 교수 전기순 동문이 지난 4월 1일 '설렘의 과정미학'을 출판했다. 2014년 '플림이미지의 상징학'에 이어 4년간의 연구 끝에 나오게 된 이 책은 2018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출판 대상 연구물로 선정된 바 있다. '설렘의 과정미학'은 설렘의 미학, 설렘의 세계관, 설렘의 과정, 설렘의 질서, 설렘의 결과, 설렘의 범주, 설렘의 원형, 결론이란 총 8부로 구성됐다. 이 책은 '설렘' 언어가 지니는 다양한 감수성을 어떻게 하면 보다 미학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에 일조할 수 있을까.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인공지능(AI)이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설렘은 생물학적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순수 느낌이며, 이성적 사고에 의해 차츰 희미한 감성 언어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나, 저자는 설렘이 지니는 언어 감성적인 깊이를 보다 미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생활 깊숙이 파고든 인공지능(AI)에 의해 차츰 소멸해가는 인간으로서의 순수 언어적 감성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설렘의 과정적인 미학'을 출판하게 되었다. 한편 전동문은 모교 졸업후 국민대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으로 석사 학위를, 홍익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강원대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며 인도델리대학교 교환교수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디자인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광고학회 이사, 한국기초조형학회 부회장, 한국디자인학회 학술이사,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이사를 역임했다. 또한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지도교수상·출판상·학술출판상과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글로벌아트페어 조직위원장 배기열(92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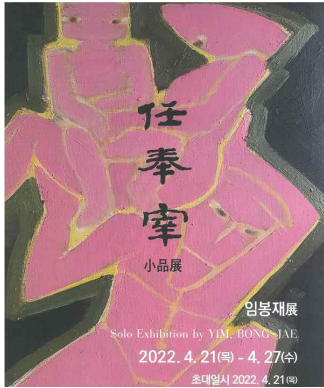
배기열 동문이 2022년 제2회 글로벌아트페어 싱가포르의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배동문은 2019년(제1회)에 전시총괄 감독으로서 성황리에 아트페어를 진행한 바 있다. 2019년부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글로벌아트페어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아트페어로 올해는 회화, 조각, 그래피티, 미디어아트 4개 분야로 전시 규모로는 국내외 갤러리 15개국, 전시 작품 1500여 점으로 유수한 화랑들의 참여와 함께 일반 아트페어와는



다르게 19세기를 풍자했던 작가 작품들의 특별 전시와 경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전시 작품으로는 앤디워홀, 데이비드 호크니, 데미안 허스트, 마르크 샤갈, 호안 미로, 오관중, 이우환 등의 작품으로 구성된 특별 전시와 함께 새로 선보일 NFT 작품코너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며 전시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싱가포르 관광청을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파장을 기대하고 있다.

임봉재 소품전 임봉재(55회화)

임봉재 동문의 개인전이 갤러리연(관장 이연순)의 주관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대전중구문화원 2전시실에서 개최됐다. 대전지역 미술계의 스승인 임동문은 초대 대전시립미술관장을 역임하는 등 대전문화예술계의 큰 산이 되어 후배들을 품어 주었다. 임동문은 구순의 나이에도 “화면은 항상 긴장한다. 짜임새 있는 구성, 변화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기에, 그리고 나의 화풍으로 그려야한다. 나만이 그릴 수 있는 화풍으로 그려야 한다. 그리고 아



류에 흐르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작품은 예나 지금이나 자연으로부터 출발한다. 한편 임동문은 1933년 충북 옥천 출생으로 모교 회화과를 중퇴한 후, 개인전 18회와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MBC금강미술대전 특별기획전,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전 등 단체전에 다수 출품했으며 대통령표창, 한국미술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전 금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SPRING 김중학(56회화)



김중학 동문의 개인전 'Spring'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조현화랑에서 열렸다. 김동문의 작품을 사계절로 구분한 4개의 전시 기획 가운데 첫 번째 '봄'을 주제로 한 전시다.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7.8m 대형 작품은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벚꽃축제에 온 듯한 압도감을 선사한다. 작품

안에는 다채로운 모양의 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동안 김동문이 보고 연구한 다양한 종류의 꽃이 이합집산 돼 있다. 꽃잎뿐만 아니라 기호적이거나 도형적 형태들이 큰 캔버스를 가득 채워 봄이라는 계절이 지닌 환희의 순간을 분홍빛 색채와 마티에르로 표현했다. 조현화랑에서는 올 한해동안 김동문의 작품을 사계절로 구분된 4개의 전시를 진행한다. 그 시작을 알리는 'Spring'이 조현화랑_해운대에서 열린다. 가로 7.8m 대작을 비롯하여 20점의 소품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봄이라는 계절이 지닌 환희의 순간을 분홍빛 색채와 짙은 마티에르로 표현되었었다. 과감한 붓터치와 신체를 활용한 작업방식은 85세 노작가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3인의 드로잉 성기점(58회화) 조여주(77회화) 김혜림(81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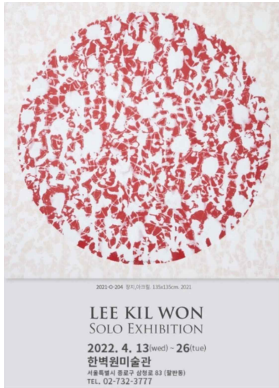
성기점, 조여주, 김혜림 동문 3인의 드로잉전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갤러리카페 봄에서 열린다. 올해 12년째로 접어드는 이들의 3인전은 시대와 작품 유형을 뛰어넘어 각자의 개성에 충실한 작품세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 동문은 매년 진행하는 전시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호 친목을 다지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성기점 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회화과 석사과정 졸업 후 한국여류화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미술인상(본상) 대상 및 MANIF 서울국제아트페어 대상을 수상했다, 조여주 동문은 파리8대학에서 조형미술학 박사과정을 수학한 작가로서 시인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김혜림 동문은 한울회와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회원이며 호주 RMIT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월전미술문화재단 초대전 이길원(69회화)

월전미술문화재단 선정 지원작가 초대전의 일환으로 이길원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한벽원미술관에서 개최되어 근작 40여점이 소개됐다. 그간 한국화의 기본 재료인 먹을 추상적 표현방식으로 개척해오며 그 지평을 넓혀온 이동문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근작은 과거의 작품들과는 사뭇 다르다. 우선 색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또한 커다란 화면을 격자형으로 세분하여 먹의 우연성을 통제하던 기존의 방법을 버리고, 크고 분방한 붓의 움직임과 흠뻑임을 이용하여 화면을 만들었다. 또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로



일관했던 작품의 형태도 달라졌다. 원형 작품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사실 그의 기존의 작품들은 필법, 즉 붓의 효과보다는 묵법, 즉 먹의 효과가 강조된 것이었다. 반면 근작들의 경우 붓의 움직임에 따른 선과 점의 표현이 주목됐다. 언뜻 이전의 작품들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격자형 구성의 작품들조차 먹과 색의 선과 점이 중요한 조형요소가 되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후 8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추계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아홉, 혹은 아홉 아닌_려 박소영(73동양)

박소영 동문의 개인전 이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아트스페이스퀼리아 초대로 열린다. '아홉, 혹은 아홉 아닌(九不像)_려(Ryeo, 麗)-'의미 깊은 시간들'이라는 이번 부주제는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친지와 지인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겪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슬픔과 위로의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알 수 없는 미지에의 소망과 목마름, 염원 등을 의미한다. 박동문은 '보화'의 헬라어 '데사우로스-θησαυρός'에 관한 조셉 리 목사의 글을 읽던 중 "문득 '의미 깊은 시간들'이란 단어와 '희생'이란 단어가 떠올랐다"고 전



했다. 그는 "'보화'의 '시간'이란 희생을 베푸는 삶일 것"이라며 그 삶을 기꺼이 꿈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생명력있는 붓질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모교와 숙명여대 대학원 회화과(석사)를 졸업한 박동문은 개인전 12회와 국제아트페어 9회, 21세기 한국의 회화전(뉴욕), 런던국제현대미술전(런던), 서울-베를린전(독일) 등 다수의 단체전을 가졌다. 또한 숙명여대·경희대·강릉원주대 강사,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인도현대작가교류회 이사, 한국화회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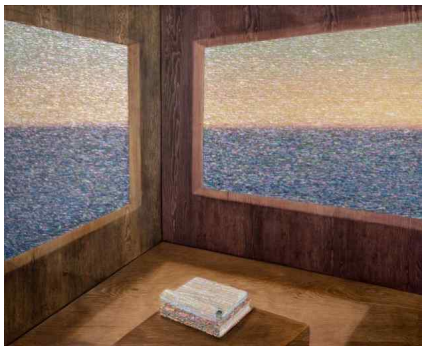
학교를 떠나며 최진욱(76회화)

최진욱 동문의 개인전 '학교를 떠나며'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 서촌 아트사이드갤러리에서 열렸다. 모교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후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다 지난해 퇴직한 작가의 일상을 전시 주제로 삼았다. 최동문은 "27년간 학교 생활이 한순간에 지난듯 싶은데 허전하다기보다는 내내 긴장하고 있다 정리되는 느낌이다"라며 "아카데미즘을 떠나 가능성의 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이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전시작에는 지난해 8월 학교를 떠나기 전과 재작년 말까지 가르쳤던 4학년

학생들이 많이 등장했다. 교수가 본인을 그리길 거부하던 학생들이 그림 속에서 살아났다. 역시나 단순하고 자유로운 붓질로 표현됐지만 본인 작품을 바라보는 학생의 옆모습은 관람객에게 마치 자화상을 엿보는 제3자의 시각을 제시한다. 최근 그는 연작을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그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눈에 보이는 색깔에 충실하려 했다면 이제 좀더 느낌에 충실해졌다. 장면 자체가 구성적으로 완결성 있으면 그대로 두지만, 새로운 색이나 선을 덧대기도 한다"고 전했다.



Seed-Mother of pearl 김덕용(81회화)



수놓아 생명의 본질을 그려낸다. 생을 다했을 것 같은 한 알의 씨앗이 기적처

김덕용 동문의 개인전 'Seed-Mother of pearl'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부산 소울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큰 틀에서 모두 빛을 다루고 있다. 해의 빛, 밤의 달과 별빛을 통해 바다와 하늘, 나아가 우주를 아우르며 김동문이 추구하는 근원적 세계를 나무 위에 자개로

럼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 나무가 되는 것처럼 생명은 형태가 변하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고 순환하며 영속한다. 김동문이 나무의 재, 솜을 사용하는 이유 또한 쓰임을 다하고 태워져서도 작품의 일부가 되어 다시 존재하는 생명력에 대해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동문은 "한줌의 형체는 하나의 점이 되어 심연의 공간에 한 톨의 씨앗과 진주로 뿌려져 새로운 생명으로 움트고 다시 우리에게 따뜻한 감성으로 비춰온다"고 말했다. 한편 모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20여회의 국내외 개인전과 주요 단체전,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마니프국제아트페어 우수작가상과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을 수상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박수근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아부다비관광문화청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휴머니즘의 봄 정혜레나(83조소)



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작품마다 사람의 표정은 나타나진 않지만, 몸

홍천에서 활동하는 정혜레나 동문의 개인전 '휴머니즘의 봄'이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갤러리4F에서 열었다. 이번 개인전에서도 정동문은 철판을 녹여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을 선보였다. 각 작품마다 각기 다른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짓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또 갈망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슬한 인간의 모습에서 단 하나도 같은 모습이 없다. 때로는 군무의 형태로 나타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올리는 모습, 굴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은 경이로움마저 든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심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 정동문의 손을 거쳐서 차갑고 무거운 철판은 열로 녹여져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소망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철이라는 차가운 물질의 매개가 따뜻하게 바뀌는 과정이다. 한편 홍천미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강원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입체미술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헬레나조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수채화전 강형덕(84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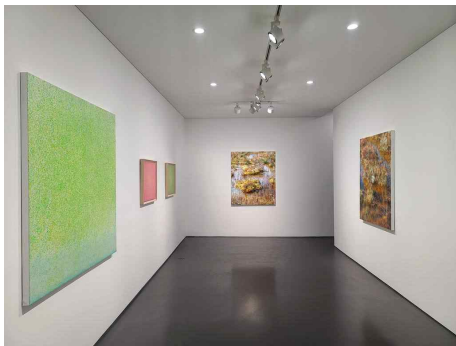


고 꼭 필요한 소재로 과감한 화면 구성과 대담한 필치로 인해 간결하면서도

강형덕 동문의 수채화전이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중구 개항장골목에 자리한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강동문은 작품전시 외에 매일 일정 시간 전시장에서 직접 작품을 그려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해 관람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했다. 강동문의 작품은 굳이 모두 담으려 애쓰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경쾌하다는 평이다. 그의 그림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뿐 아니라 주변을 감싸는 시간의 흐름마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정작 배경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빛과 그림자'다. 인상파가 그러했듯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이뤄지는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강동문은 예민하게 타고난 감수성과 세련된 조형감각으로 풍부한 인상의 수채화를 그려내는 작가로, 대상이 간직한 속내를 관조하면서 아름다움을 담아내 한 편의 시를 읽듯 고요한 마음으로 비추어 보는 사색의 힘이 가득하다. 강동문은 모교를 나와 성균관대학원에서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을 전공했으며 6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국제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고 한국미술협회 사무국장, 각종 공모전 심사위원 역임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화론전 이창남(85서양) 등 9인



전시가 올봄 이화익갤러리에서 두 번째로 이어졌다. 이창남 동문을 시작으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이화익갤러리가 봄을 맞아 지난 4월 6일부터 19일까지 국내 화단을 대표하는 40, 50대 중견 작가 9명의 꽃 그림을 선보였다. 이름하여 화론(on Flora and Painting)전. 꽃(花)으로 그림(畵)을 논하고, 그림으로 꽃을 말한다. 작년 봄 서울 통인화랑에서 처음 시작한

각자 함께할 작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함께 모인 9인의 작가들은 본인만의 독특한 화풍을 기반으로 자연과 꽃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 전시를 최초로 제안한 이창남 동문은 "코로나 시기의 무기력함 같은 것들을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제안을 받은 작가가 또 다른 작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모였는데, 모두 모교 서양화과 동문으로서 이창남(85서양), 한수정(86서양), 이광호(87서양), 이만나(89서양), 김정선(90서양), 이정은(90서양), 신수진(91서양), 김제민(98서양), 허보리(99서양) 등이다. 이창남 동문은 "이전에 서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으나 전시에 뜻을 함께했다"며 "끈기있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온 작가들"이라며 올해 전시가 이어졌으니 앞으로 매년 한 번씩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GOOD TO SEE U 배준성(86서양)



현해오며,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 케어링 그룹 피노 회장, 브래드피트를 비롯한 전 세계 슈퍼컬렉터들에게 각광을 받아온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배동문의 대표 연작 누드 시리즈, STILL LIFE 정물 시리즈, 작업실에서 시리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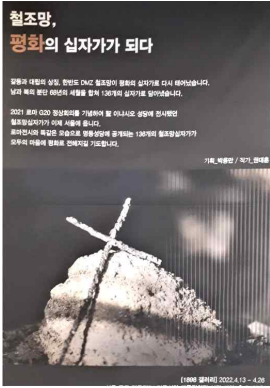
배준성 동문의 개인전 'GOOD TO SEE YOU'가 3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트리니티갤러리에서 열린다. 동문의 대표 작품 제목이기도 한 'GOOD TO SEE YOU'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가 서서히 되찾게 될 일상과 하루 빨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국내를 대표하는 아트페어 1세대 배동문은 '작업실에서', '미술관'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을 평면회화와 렌티큘러를 결합한 방식으로 표

총 20여점이 출품된다. 배동문은 전통적인 방식의 그리기 위에 렌티큘러 기법을 도입해 회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재생산 해냄으로써 고유의 총체적인 스타일을 구축해왔다. 배동문의 대표 연작 '화가의 옷' 연작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누구나 알만한 거장의 '명화' 이미지를 정물처럼 재배치한다. 그는 고전 명화 속 모델, 옷, 배경 등을 우리가 존재하는 지금 이 공간으로 다시 불러온다. 옛 명화 속 오브제들은 현재의 공간에 재배치되고, 이 과정에서 동시대적 사건이 발생하며 회화 속 의미는 재 명명된다. 이는 정물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배동문의 흥미로운 관점과 창의적 시각에서 비롯된다. 한편 배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 후 1995년 정경자미술문화재단 신인예술가상, 2000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고 국내뿐 아니라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한국민속촌,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보자르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2 회원동정-전시

철조망, 평화의 십자가가 되다 권대훈(90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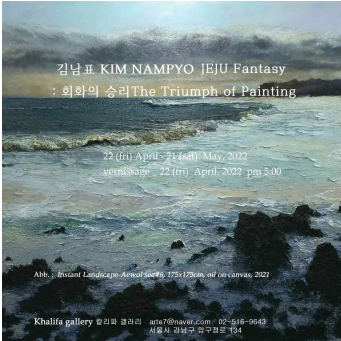
서울 명동갤러리 1898의 제3전시실에서 지난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철조망, 평화의 십자가가 되다’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재)같이걷는길 박용만(실바노) 이사장이 기획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상징인 DMZ 철조망, 마음속의 철조망을 걷고 평화를 이루자는 바람을 담았다. 십자가 제작에는 모교 조소과 교수 권대훈 동문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전시된 십자가는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 만들었다. 남북을 둘로 나누고 있는 약 250km의 휴전선 철조망 중 폐철조망 일부를 확보



해 제작했다. 모두 136개의 철조망 십자가가 전시되었다. ‘136’이라는 숫자는 휴전 선포 후 갈라져 살아온 남북의 서로 다른 68년을 합한 숫자다. 두 개의 68년이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이루자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우크라이나 등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대립과 갈등의 현장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속 단절과 전쟁을 오늘도 헤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철조망 십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안의 수많은 갈등과 대립의 장벽을 걷고 평화를 염원하자는 기도다.

회화의 승리 김남표(91서양)

김남표 동문의 개인전이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칼리파갤러리에서 열린다. 김동문은 쇠조각, 인조털, 목탄, 파스텔, 콘테, 유화 물감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며 회화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을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답을 구축해나가는 작가이다. 한편 김동문은 1970년에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모교 및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 19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뮤지엄 산, 롯데갤러리, 코리아나미술관, 갤러리인,



경기도미술관, 소마미술관, 서울대박물관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열리는 단체전에 200여회 이상 참여하였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홍콩, 베이징, 런던,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스페인, 뉴욕 등 해외아트페어에도 참여하며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문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아트뱅크, 성남미술재단, 수원시립공원미술관, 대구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Flat Hole 장소연(02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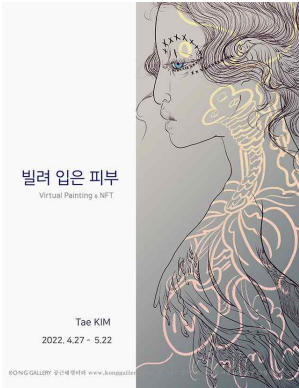
장파 장소연 동문의 개인전 ‘Flat Hole’이 마포구 ‘전시공간(全時空間)’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렸다. 책과 동명의 전시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플랫 홀’은 미술사 속 하나의 ‘작은 미술사’를 다루고자 하는 장동문의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장동문은 장기간 수집한 다양한 여성 재현의 이미지 위에 드로잉을 하고 실크스크린을 덧입힌 작업을 선보였다. 아카이브 이미지들이 당대의 이데올로기나 상황에 대한 일종의 긍정적/부정적 반응이라면, 장동문



은 드로잉을 통해 이 이미지들이 품고 있는 의미를 한 명의 동시대인으로서 재구성하고 그것에 반응하여 해석의 여지를 넓히고자 했다. 전시와 함께 발간된 책은 에디션이 있는 실크스크린 작업을 포함한, 전시에서 선보인 드로잉 18점 및 그에 덧붙인 토막글로 이루어져 있다. 이 토막글은 장동문이 구성한 이미지의 첫 번째 감상자로서 쓴 것으로, 다른 감상자들의 이미지 독해를 제한하기보다는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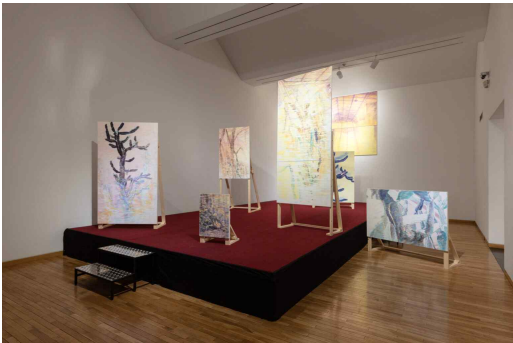
빌려입은 피부 김태연(03동양)

공근혜갤러리는 4월 27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전속 작가 김태연(태 김) 동문의 버추얼 회화와 NFT 작업을 선보이는 ‘빌려 입은 피부’전을 개최한다. 런던과 서울,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이 전시는 한국 미술의 내일을 이끌어 갈 MZ세대 작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뜻 깊은 자리다. 이 전시는 영상, 조각, 회화, 그리고 NFT, 이렇게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특히 이번 전시 대표작인 ‘초 연결 심’ NFT 영상 작을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Klipdrops.com 을 통해 에디션 3점으로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



원 동양화과 졸업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영국 런던 슬레이드미술학교에서 회화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21년에는 Art in Culture 미술전문가 9인이 선정한 영파워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영국의 미술전문 잡지 Trebuchet에 장작 6페이지에 걸쳐 인터뷰 기사가 소개되었다. 또한 하동철창작지원상, Eileen Gray Scholarship(영국), Selected for Jer wood Drawing Prize(영국) 등을 수상했으며 2018년 소마미술관 등록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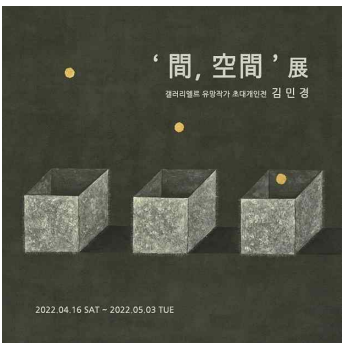
Survival in Fantasy 최가영(08동양)



‘2022 금호영아티스트’에 선정된 최가영 동문의 개인전 ‘Survival in Fantasy’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에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지어졌다가 지금은 폐업한 테마파크 ‘부곡하와이’를 소재로 한

다.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외국인 댄서 'J'가 1984년에 영국으로 보낸 엽서를 우연히 최동문이 수집한 것을 발단으로, 여러 가지 기록물과 인터뷰, 답사를 바탕으로 이제는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한 인상을 회화로 표현했다. 최동문은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적응과 생존을 이어갔던 외국인 댄서와 열대 식물들이 소재가 되었다”며 “이 작업을 통해서 각자의 이상을 위해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근래에는 한지와 캔버스에 수묵, 수묵채색, 아크릴 등으로 그리는 회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회화의 표현과 감상을 매개로 이상과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間, 空間 김민경(12동양)



김민경 동문의 개인전 '間, 空間'이 4월 16일 토요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갤러리엘르에서 열린다. 김하빈 큐레이터는 "김민경 작가의 작품은 인간의 세계를 담고 있다. 그녀의 작업 안에서 모든 인간은 기하학적인 셀의 형태로 존재하며, 하나의 우주의 형태로써 인간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며"동양화의 매력이 그렇듯

김동문의 작품은 한지에 색채가 스며드는 과정처럼 잔잔하고 차분하게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또한 "작가만의 시선으로 은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인간 관계라는 필연적인 삶의 과정을 감상하며 세상을 범우주적으로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그 가운데 자기자신,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네의 모습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2017년 '다가 다가', 'The Same Earth', 2020년 '그들의 대화', 2021년 '고요한 대화'등의 개인전과 10여 회의 그룹전을 가졌다. 또한 제13회 '한성백제미술대상전' 특선 수상을 하였으며 tvN드라마 '호텔델루나'의 동양화 작가를 맡은 바 있다.